

<2011년 8월 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인의 말대로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사명도 달라지고 할 일도 좌우되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할 일도 달라지고 사명도 좌우된다. 시대도 교파도 그러하다.
2. 많은 사람을 두고 각각 말하는 내용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친구로, 혹은 형제로, 혹은 애인으로 좌우된다. 이와 같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주님의 어떠한 대상이 되는지 좌우된다.
3. 남자의 X, Y 성 염색체로 태 안에서 남녀의 성별이 결정되어 버리듯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내용에 따라 듣는 자의 사명도 좌우되고, 구원의 위치도 좌우되고, 영과 육의 변화도 좌우되고, 영의 형체도 좌우된다.
4. ‘가라’ , ‘오라’ , ‘하라’ , ‘하지 말아라’ 주인이 말하는 내용에 따라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할 일이 좌우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위치가 좌우되고, 변화하는 것도 좌우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이 되느냐도 좌우된다.
5. 사람이 어떤 존재물을 만들기에 따라 그 형체가 좌우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그 행함도 좌우되고, 그 육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 영의 형체도 좌우된다.
6. 집을 짓지 않고서는 집이 될 수 없듯이, 정원을 만들지 않고서는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지 않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때에 주님께서 인간을 그 사랑하는 애인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다.

7. 무(無)에서 애인으로 만들어 애인이 되고, 신부로 만들어 신부가 된다.

8. 하나님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어 천지 만물들을 이같이 창조해 놓으셨다.

9. 존재물은 그냥 있으면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야 만들어진다.

10. 무(無)에서 유(有)다. 목적인 바를 만들어야 목적인 것이 만들어져 존재하게 된다.

11.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성령님은 ‘말씀’으로 그 원하는 자들을 만드신다. 선지자를 통해, 중심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함으로 자녀로, 형제로, 혹은 사랑하는 신부로 변화시키며 만드신다.

12.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말씀’을 주시어 듣는 자가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만드신다. 어떤 자는 자녀로, 어떤 자는 신부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사역자로 만드신다.

13.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을 하면서 만든다. 또 행하면서 만든다.

14. 보물을 얻기 전에 먼저 먹어야 한다. 먹고 살아야 보물도 필요하게 쓰게 된다. 이와 같이 신랑의 보물보다 먼저 영의 양식인 말씀이다. (고로 무엇을 얻으려 하기 전에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라.)

<2011년 8월 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5. 감동되었을 때 생각과 실천이다.

16. 마음과 몸이 흥분됐을 때 생각과 실천이다.

17. 주님 말씀을 듣고 감동되고 마음이 흥분됐을 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평소에는 감히 생각하고 실천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이다.

18. 마음이 동하고 흥분됐을 때의 그때 생각, 그때 실천은 산을 넘게 하고 바다를 건너게 한다.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낳는다.

19. 사람도 짐승도 사랑에 흥분됐을 때, 그 생각이 하늘로 솟아 강을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가고 산을 넘어간다.

20. 감동됐을 때 육계를 벗어나 영계의 문을 열고 주님에게까지 도달하게 된다.

21. 흥분은 하되 울분은 하지 말아라.